

한국공간구조학회 창립과 앞으로의 전망

김재열 / 한국공간구조공학회 총무이사

jjkim88@yurim.skku.ac.kr



〈사진〉 앞쪽 앉으신 분 왼쪽부터 정재철 교수(대한건축학회회장), M. Kawaguchi 교수(세계 공간구조학회회장), 권택진 교수(성균관대학교), 김형걸 명예교수(서울대학교), T. T. Lan 교수(중국 공간구조학회회장)

지난 5월 26일 한국공간구조학회 발기인대회와 창립총회가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이 학회는 그동안 성균관대학교 권택진 교수가 창립추진위원장이 되어 창립을 준비하여 왔으며, 대공간구조에 관련하여 산·학연구에 종사하는 100여명의 발기인이 학회 창립에 동의하고 참여하였다.

공간구조는 곡면구조 원리를 바탕으로 한 형태저항형 구조시스템을 이용하여 구조물의 역학적 성능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구조적 아름다움을 실현시킬 수 있는 구조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1988년 서울 올림픽 개최와 2002년 월드컵 유치를 계기로 이 분야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한층 전문화되는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뿐 아니라 학술연구와 기술개발 등 실천적인 산학협력력을 통해 국내 공간구조 분야의 학술 및 기술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산학협력 기구의 출범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이 분야에 관련된 모든 산·학·연 연구자 및 실무자들의 창의적 능력 발휘와 함께 독자적인 선진 기술개발을 목표로 하여 학회를 창립하였다. 창립총회에서는 대한건축학회 정재철 회장, 한국콘크리트학회 이리형 회장,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유병익 회장을 비롯하여

많은 산·학연 인사들이 참가하여 학회 창립을 축하해 주었다.

아울러, 국내외 저명한 전문가를 초청한 강연회에서는 본 학회 초대 회장으로 선임된 성균관대학교 권택진 교수(韓國의 大空間構造 現況), 중국공간구조학회장 T. T. Lan 교수(A review of the development of spatial structures in China), 세계공간구조학회장 M. Kawaguchi 교수(A few approaches to rational spatial structures), 한양대학교 이병해 교수(통합시스템을 이용한 대공간 구조물 설계가 공간구조에 관련된 최근의 동향 및 연구결과에 대해 발표하였다(괄호안이 발표 제목).

앞으로 이 학회는 아직 여러면에서 미비한 한국의 대공간구조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정립시켜 나갈 것이다. 특히, 각 구조 부재에 대한 기준 및 관계 법령의 정비가 가장 시급하다고 한다. 또한, 학회가 중심이 되어 이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학계 뿐 아니라 산업계의 역량을 한곳에 모으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를 계기로 국내의 대공간구조에 관련된 산업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크게 발전되어 나갈 것이며,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과 같이 건설분야의 큰 축을 이루어 나갈 것이다. **KSEA**